

활짝 핀 성에꽃, 길림시 조선족 촬영가들 카메라에



빈강남로에 아름답게 피어난 성에꽃

/ 로현희



소무송도에서 성에꽃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 리화자

해마다 중국 4대 경관중의 하나인 길림 무송을 구경하기 위해 길림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길림 무송은 길림시 겨울철 관광명함중의 하나로 된 지 오래다. 겨울철마다 길림시 송화강 양안의 버드나무가지에 피는 아름다운 성에꽃은 겨우내 얼지 않는 송화강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상승 도중 찬 공기를 만나 강변의 나무가지에 맺히는 현상이다. 성에꽃은 운 좋은 사람만 볼 수 있는 희귀하다고 할 만큼 보기 드문 광경이다. 성에꽃을 피우는 데는 송화강물과 겨울날 찬 공기의 적절한 온도 차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설령 성에꽃이 피었다고 해도 밤새 핀 성에꽃은 그 지속시간이 길어서 이튿날 정오전까지 다. 해가 떠서 10시 무렵이면 성에꽃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피었나 싶을 정도로 소리없이 녹아서 가뭇없

이 사라져버린다. 올겨울은 왕년과 대비해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관계로 길림 무송은 섭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첫 4성급 성에꽃 경관을 맞이한 뒤 드디어 1월초 소한이 지나서 대자연은 근사한 성에꽃을 다시 한번 활짝 피워 관광객들의 눈을 호강케 하였다. 매일 길림시 무송 기상예보를 지켜보며 성에꽃 소식을 기다리던 길림시 조선족 촬영애호가들에게도 값진 기회가 찾아왔다. 1월 7일, 길림시 송화강땀 바로 아래 위치한 유명한 무송관광지 아스하달에서, 1월 11일에는 길림 시내 무송관광지의 하나인 빈강남로와 소무송도에서 김성, 리화자, 모현희 등 길림시조선족촬영애호가동호회 회원들이 카메라에 만개한 성에꽃 경관을 담았다. / 차영국기자

‘복을 선물합니다’

조선족 여성들 설명절 맞아 춘련 쓰기 행사



1월 21일,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포럼과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서예애호가들은 공동으로 춘련 쓰기 행사를 개최했다.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포럼 다기능 홀에서 진행된 이번 ‘춘련을 써서 설명절을 맞이하고 복을 선물하자’는 취지의 행사에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포럼 부관장 박건국과 직원들 및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리옥란 회장을 비롯한 서예애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서예반의 공익강사이기도 한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포럼 박건국 부관장은

서예에 관한 본인의 체득을 현장에서 행사 참석자들에게 전수했다. 현장 시범과 결부한 독창적이고 생동하고 재미있는 해설에 이어 현장에서 창작한 박건국 부관장의 작품은 높은 서예 수준을 보여주었다. 행사장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고풍스러운 가야금 반주 속에서 민족복장을 차려입은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서예애호가들은 손에 든 붓으로 중국 전통 명절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 김옥화, 로경림, 차영국기자

북극 강성 ‘절기 명성’ 칭호 수상, 길림성 유일

일전, 북경에서 소집된 2024 ‘중국날씨’ 브랜드 농촌진흥발전행동계획 년도사업회의에서 ‘절기 명성’, ‘절기 명품’, ‘절기 명풍경’의 3대 권위 순위를 발표했는데 북극 강성과 길림 무송이 명단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중국기상국 응급재해경감(应急减灾) 공공서비스가 지도하고 중앙기상대, 화풍기상매체그룹이 주최하였으며 신화사, 인민일보사, 중국일보사, 중신넷, 봉황넷, 북청넷 및 중국날씨유니미디어 등 여러 주류 뉴미디어 플랫폼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절기 명성’, ‘절기 명품’, ‘절기 명풍경’ 권위 차트를 발표하고 간판수여식을 거행했다. 전국 기상봉사 농촌진흥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9개 도시가 ‘절기 명성’ 칭호를 획득하였는데 길림시는 우리

성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도시이다. 이 밖에 길림 무송은 ‘절기 명풍경’ 칭호를 수여받았다. 최근년간 길림시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 풍부한 자연자원 및 두터운 문화적력으로서 절기 문화를 문화관광의 발전과 농촌 진흥에 융합시켜 지방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기상 봉사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한편, 회의에서는 ‘절기도시응용련맹’을 정식으로 가동했다. 각 성원들은 기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도시계획, 농업생산, 재해방지, 공공위생 등 여러 분야에 더욱 잘 봉사하게 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모색하여 농촌진흥전략의 전면적인 추진에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 송화강넷

길림시 10년 연속 ‘빙설관광 10대 도시’에

할빈에서 열린 2025 빙설관광발전대회에서 길림시가 ‘2025년 빙설관광 10대 도시’의 영예를 따냈다. 최근 중국관광연구원, 할빈마체르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 빙설관광발전대회가 흑룡강성 할빈시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중국 빙설관광 발전보고(2025)〉, 〈할빈 빙설관광 발전보고(2025)〉 및 2025년 빙설관광 10대 도시와 혁신 사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빙설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 빙설경제 고지를 건설하자’는 대회의 주제를 둘러싸고 길림시 문화관광빙설산업 대표들은 국내 각지에서 온 관광업계 전문가 및 학자들과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교류했다. 중국관광연구원 빙설관광과제팀은 빙설관광자원 경쟁지수, 빙설관광수요 경쟁지수, 빙설관광시장 경쟁지수 체계, 빙설관광 목적지 관리 수준 등 지표에 근거하여 2025년 국내 빙설관광 목적지 경쟁력지수 10위권 도시를

종합적으로 추산해냈는데 길림시와 장춘시가 길림성의 대표로 10강에 진입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길림시는 이미 연속 10년간 전국 빙설관광도시 순위 10위권에 들었다. 북위 43도 세계 황금분설대에 위치해있는 데다 중국 4대 자연의 기이한 경관중의 하나인 길림 무송이 있는 등 길림시의 빙설관광자원은 천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년간 길림시는 빙설운동, 빙

설문화, 빙설관광, 빙설상업무역, 빙설장비제조 등 ‘빙설+’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원을 깊이 파고 혁신융합하여 새로운 장면을 만들고 새로운 활동을 출시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체험을 만들며 ‘무송의 도시 스키천국’이라는 금강판을 내걸고 빙설산업 발전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빙설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 송화강넷

국제동계롱주초청경기 송화강에서

북소리가 간간히 울리고 물보라가 흩날리는 가운데 용사들은 힘껏 노를 저어 앞으로 돌진한다. 1월 18일 오전, 2025 중국·길림시국제동계롱주초청경기가 길림시 선영구 림강유원지 송화강 수역에서 개막되었다. 길림시와 북경, 상해, 천진, 남경, 운주 및 국외에서 온 12개 팀의 도합 170명 선수가 이번 경기에 참가했다. 이번 경기는 중국롱주협회, 길림성체육국, 길림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시체육국, 길림시체육총회에서 주관했다. 이번 경기는 200미터, 500미터

스피드 레이스 두 종목으로 나뉘 열렸다. 이날 최고기온은 3도로 송화강변 제방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북소리가 울리자 롱주들이 현을 떠난 화살처럼 출발점을 뛰쳐나와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매치의 롱주마다에서 북치는 선수는 리듬을 장악하고 조타수(舵手)는 방향을 통제하며 12명이 노를 저어 송화강에 아름다운 호선을 그었다. 선수들은 관중들의 박수와 응원 함성소리에 힘을 내어 노를 저었다. 왕년과 달리 이번 대회에는 전문 스포츠 진행자를 초청해 현장 해설도

했다. 사회자는 심판이 어떻게 총돌선을 판정할 것인가로부터 롱주가 담고 있는 두터운 문화적 함의에 이르기까지 관중들에게 상세하게 해석했다. 남경롱주대표팀 인솔자 진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림시에 와서 경기에 참가하면서 지난 기와 마찬가지로 동북 인민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날씨도 아주 따뜻하고 여러 면의 조건도 모두 좋다. 북방에 와서 이런 롱주문화를 느끼는 것은 남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진귀한 경험이다. 겨울에도 롱주놀이를 할 수 있어 느낌이 매우 좋다. / 송화강넷

운주시 창남현취룡롱주구락부 인솔자 진사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에 나는 종래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경기를 한 적이 없다. 오늘 체험은 아주 남다른다.” 그는 이곳에 와서 아주 좋은 민풍을 느꼈다면서 길림시와 운주시 두 도시의 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치열한 각축을 거쳐 동북전력대학 롱주팀, 운주시 창남현취룡롱주구락부팀, 광둥 남해롱주문화발전촉진회 롱주팀이 각기 두가지 경기 종순위 1, 2, 3등을 차지하였다. / 송화강넷

길림시 공익빙상장에서 스케트 친선경기



1월 11일, 2024—2025 ‘길림시 공익빙상장 스케트 친선경기 결승전’이 길림시체육운동기지 공익빙상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길림시체육국이 주최하고 길림시전민건강활동센터에서 주관했다. 대회는 ‘아이스스키 타기·쾌락성지’를 주제로 전 시 각 도시구역 스케트애호가들의 광범한 참여에 자발적으로 8개 대표팀을 조직, 선별하여 경기에 참가시켰다. 경기는 도합 6개 조를 설치했는데 참가 총수가 200

명에 달하였다. 최근년간 길림시의 빙설체육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연속 수년간 시민들에게 공익 빙설 장소를 제공하고 겨울 경기를 베풀도록 하여 빙설운동을 좋아하는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범한 군중들로 하여금 빙설운동이 가져다주는 비범한 체험과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마음껏 향수하도록 하는 등 전민빙설운동의 농후한 분위기를 한층 더 조성하였다. / 송화강넷

국가급 첨단기술기업—릉원과과학기술의 놀라운 실력

길림시 영길경제개발구에 위치한릉원과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는 터널굴진기 칼 연구개발, 설계, 제조, 판매, 서비스 일체화 해결 방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가급 첨단기술기업이며 경암(硬岩) 칼 계열 제품 업계 표준의 제정자이다. 터널굴진기는 ‘공정기계의 왕’으로 불리우는데 한개 나라의 제조업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표지이다.릉원과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부총경리 화장강은 2016년 이전에 굴진기에 사용된 칼은 완전히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가격이 높고 재사용할 수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남에게 구속받는 곤경을 타파하기 위하여 기업은 끊임없이 연구개발강도를 높였다. 근 5,000 만원을 투입하여 각 고리에 대해 여러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경암칼 업종의 공백을 미봉하였다.릉원과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에서 제조한 같은 이미 국내외 중대 프로젝트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는데 천장절도, 천산승리터널, 고루치야 고도리터널, 세계 최장 해저고속터널인 금당(金塘) 해저터널 등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 현대화 건설에 수백만개의 칼 계열 제품을 제공하

였다. 화장강은 최근 서천산 특장터널 시공 프로젝트가 다시 승진보를 전했다고 소개했다.릉원과과학기술이 독점적으로 칼을 공급하는 ‘온속호’ TBM 경암굴진기는 지난해 10월에 월간 진척(进尺) 741.7미터, 하루 진척 45.3미터의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며 전세계 동급, 동류 및 동종 시공 방식에서 굴진 최고 진척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현재릉원과과학기술은 또 목표를 차, 고속철, 풍력발전 등 새로운 분야에 맞추고 있다. “우리는 칼 연구개발에서 얻은 핵심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련 설비의 배어링 부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외 기술독점을 타파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이다.”라고 화장강은 말했다. 지난해 8월릉원과과학기술은 영길경제개발구에서 고산장비산업단지(3기) 프로젝트 정초식을 거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2만 5,000평방미터의 현대화 생산작업장을 건설하는데 완전한 배어링 전체 링크 폐쇄고리(轴承全链路闭环) 생산라인을 배치하게 되며 매 생산고리마다 100%의 완전한 자주적 통제를 실현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게 된다. / 송화강넷